### 1) 당산제

당산제는 마을회의에서 화주와 축관 등 제관을 뽑는 것부터 시작된다. 마을사람 중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정결한 사람으로 화주와 축관, 집사 등의 제관이 선출된다. 제관은 선출된 날로부터 목욕재계를 하며 금기로 들어가 언행을 삼가며 부부가 한방에 들지도 않는다. 이때 화주집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당샘에서 떠온 깨끗한 물로 술을 빚고, 정성을 들여 제사에 쓸 음식을 마련한다. 당샘도 물을 퍼내고 청소를 해서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으며, 당도 역시 청소를 하고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아둔다.
제일이 되면 화주집에서 마련한 제수를 지게에 지고 당에 진설한 후 초헌, 아헌, 종헌, 독축 등의 절차로 제를 모시고 음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산신당 혹은 윗당, 아랫당 순으로 제를 지내면 끝나게 된다. 한편 위의 설명은 유교식 당산제의 절차이고, 풍물이 동원되는 당산제에서는 당으로 제수를 나를 때부터 풍물 곧 매구를 치고 제를 모시기 전 당 주위를 돌며 치다가 제를 끝내고 마을로 돌아올 때에도 친다. 그리고 보다 큰 규모로 당산제를 모시는 곳에서는 무당을 초빙하여 당굿을 지내기도 한다. 당굿은 제관들의 제의가 끝난 다음 무당들에 의해 진행되는 굿이다. 이 굿에는 마을의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당들의 다양하고 긴 굿거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당산제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당산제가 끝난 다음날, 보통 음력 정월 15일에는 마을회관에 모여 대동회의를 하고, 제물을 음복하고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논다. 이날은 줄다리기를 하고, 풍물을 치며 마당밟이를 한다. 대동회의에서는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며, 이장을 새로 뽑고 신년도 사업과 예산을 의논하고 품삯이나 머슴의 새경도 정한다. 줄다리기는 남자와 여자가 편을 갈라 하는데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마당밟이에서는 당과 공동샘에 인사하고 공동체 성원의 집집을 돌며 풍물을 치며, 집안 곳곳과 마을 전체의 액을 몰아내고 복을 불러들이는 기원을 한다. 이러한 마당밟이를 통해 마을기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술과 음식을 나누며 노래와 춤을 추면서 한판의 축제를 누림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당산제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민속신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적 성격을 두루 담고 있으나 신앙 행위 그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당산제가 지닌 성격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당산제의 두드러진 특성은 공동체성이다. 당산제에서 모시는 당산신은 공동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마을을 이어주고 지켜주는 시조신이자 수호신이다. 당산신은 공동체의 역사와 삶터를 지켜주고, 나와 이웃을 지켜주며, 마을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시키고, 소망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신적 신뢰의 구심점 구실을 한다. 그래서 성원들은 주체적으로 당제에 관계하고 참여하며, 모든 준비와 진행은 공동 주체의 양상을 띠게 된다. 당산제에서의 기원은 공동체 성원 모두의 무병강녕이며 풍요롭고 건강한 삶에 대한 소망이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의례와 절차를 통한 기원은 음복의 나눔으로 연장되며, 놀이와 축제의 즐거움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당산제의 한 특성으로 당산제의 구체적 계기이자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당산제는 우리 민족의 토착신앙이며 농업과 어업 등의 생산에 종사하는 민중의 종교이다. 우리는 여기서 당산제의 기층문화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기층이란 공간적인 측면에서 밑바탕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원초적인 것을 뜻하며, 더 나아가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것을, 공시적인 측면에서는 근원적인 것을 의미한다. 당산제의 이러한 기층성은 당산제가 민속문화의 원본으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당산제의 역사성에 근거하고, 내재된 민중의 세계관과 삶의 원본적 질서가 동력으로 작용하여 민속문화의 구체적 실현을 낳게 했

다.
한편 이러한 종교적이며 공동체적이고 기층적인 당산제의 성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전개와 각 지역에서의 전승을 통해 살아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당산제를 과거의 것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창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산제의 여러 가지 성격과 면모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당산제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 교량동 당산제

교항마을과 양률마을을 합해 교량동이라 부른다. 이사천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제사의 명칭은 당산제이다. 당산제를 지내는 시기는 음력으로 섣달 그믐날이다. 만약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흉사가 있으면 정월 보름 안으로 날을 잡아 당산제를 모셨다. 그렇지만 이렇게 날짜를 옮겨 제사를 모신 경우는 별로 없으며, 항상 섣달 그믐날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당산제의 대상은 마을 옆 하천 제방에 있는 당산나무이다. 신격은 당산할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상대되는 존재인 당산할머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한다.
제주는 음력으로 12월 25일경에 마을총회에서 뽑는다. 이때의 마을회의는 1년 중에 가장 큰 총회로, 이 자리에서 지난해를 결산하고 다음해의 일을 협의하며, 통장과 반장 등을 선출하고 품삯과 울력할 일들을 정하였다. 이 총회에서 제주를 뽑는데, 집안에 '걸거친 일'이 없는 사람이 선정된다. '걸거친 일'이란 상을 당하거나 흉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제주로 뽑혔다. 제주나 매구꾼들은 궂은 일에 참여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전해오는 말에 당산굿을 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개고기를 먹고 당산굿을 쳤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한편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이 당산제를 몇 년간 잘 모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신도 있다. 제주에게 요구되는 금기와 베풀어지는 혜택은 제주 역할의 이중성을 말해준다. 당산의 영험성 안에 제주 역할을 기피하게 하는 요소와 일부러 제주를 맡게 하는 상반된 요소가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지금은 제주를 따로 뽑지 않고 통장이 맡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 제주가 지켜야 할 금기나 정성이 까다로워 서로 제주 역할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장이 제주를 맡게 된 것은 10여 년 전부터의 일이다. 제주로 선정된 사람은 제사를 모시기 전까지 집 안에서 기우해야 했다. 그리고 깨끗한 곳에 가서 황토를 파다가 대문 앞에 금토를 놓는다. 과거에는 짚신 세 켤레를 놓고 썼다고 하는데 집 안에서 활동할 때 신는 신과 화장실 갈 때 신는 신, 그리고 제물을 사러 시장에 갈 때 신는 신으로 구분했다고 한다. 그만큼 정결하게 기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물은 순천장에 가서 사온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나 과거에는 삿갓을 쓰고 제물을 사왔다고 한다. 제물값은 깎지 않으며, 제물의 종류는 집안의 제사와 비슷한 종류를 준비한다. 제비는 마을돈으로 충당하며 쌀 다섯 말 값을 제주에게 주어서 준비하게 한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쌀을 걷어서 당산제를 지냈는데, 5~6년 전부터는 마을돈에서 제비를 마련한다. 마을돈은 '비행저축'이라고 하여 보리를 조금씩 걷어 모은 것과 매구를 쳐서 모인 돈으로 비축한 것이다. 쌀 다섯 말로 제비를 정한 것은 그 정도면 당산제를 치르는 데 적당하겠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산제를 모시기 전날에 제주는 당산나무 밑을 청소하고 금줄을 치고 금토를 놓는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을 옆에 흐르는 이사천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 지금은 이사천에서 목욕

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한다. 섣달 그믐날 저녁이 되면 마을사람들은 바깥출입을 삼가고 정숙을 유지한다. 밤 12시 정도가 되면 제주 부부가 제물을 들고 당산나무 밑에 진설하고 제사를 드린다. 당산할아버지에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메는 한 그릇을 차린다.
이튿날이 되면 마을유지들이 제주집에 모여 음복을 한다. 당산굿과 마당밟이는 1월 5일 무렵부터 하는데 먼저 당산나무로 가서 당산굿을 한 후 마당밟이를 했다. 한편 줄다리기는 60여 년 전까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한다. 시기는 음력 정월 보름날 했으며, 위뜸(웃돔)과 아래뜸(아랫돔)으로 나누어 쌍줄을 당겼다고 한다. 어느 편이 이기면 좋다는 속신은 전하지 않으며, 진 편이 동네 울력을 맡아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서로 이기려고 했다.
마을사람들은 당산할아버지가 대단히 영험한 존재라고 믿고 있다. 1943년경에 동네에 큰 화재가 났는데, 마을사람들은 당산제를 잘못 모셔서 생긴 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다시 날을 잡아 제사를 모신 적이 있다. 그리고 1993년에는 동네에 초상이 연달아났는데 당산제를 잘못 모셔서 비롯된 일이라고 여겨 음력 1월 14일 낮에 다시 당산제를 모신 적도 있었다. 또한 제보자 이재영이 15세 무렵인 59년 전에 동네에 콜레라가 돌았는데, 당산제를 잘못 모셔서 그렇다고 하여 여름철인데도 날을 잡아 모셨다고 한다.
교량마을의 동제신이 이렇게 무섭고 엄한 존재이지만, 대단히 영험하기 때문에 정성이 지극한 제주에게는 복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한 집에서는 당산제를 통해 정성을 들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속신이 내려오고 있다. 실제 몇 년간 정성을 다해 당산제를 모신 제주 두 사람이 아들을 얻은 일이 있다고 한다. 임개똥과 장찬식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인데, 장찬식은 지금도 생존해 있다.

■ 제보자 : 이재영(남, 74), 1994. 12. 5. 현지조사

### (2) 삼산동 망북마을 당산제

망북마을의 당산제는 현재 전승되지 않는다. 제보자들과 면담을 통해 옛날의 당산제를 재구성하였다. 당산제가 어떤 계기로 중단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한 사례이다.
당산제를 모시기 위해 정월 10일쯤에 마을회의를 열어 제주를 뽑았다. 제주는 부정 없고 깨끗한 사람과 초상이나 산고가 안 든 사람이 선정되었다. 한편 "아들·딸 못 낳은 사람도 제사를 정성들여 잘 모시면 애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 그런 사람이 지원하거나 선택해서 제사를 모시게 하기도 했다. 손귀남은 60여 년 전쯤 쌍암에서 이사와서 살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인데도 영리하다'고 하여 제주를 도와 제사를 모시게 되었으며, 그후 제주를 7년 정도 맡아서 했다. 제주로 뽑히면 3일간을 금기했다. 먼저 산에서 금토를 퍼다 대문 앞에 놓고 왼새끼로 금줄을 쳤다. 제주의 금기는 엄격해서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는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목욕은 찬물로 했는데, "얼음을 깨고라도 목욕을 했다."고 한다.
제사를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은 집집마다 얼마씩 걷어서 했다. 제사에 쓸 제기와 제물은 제주가 시장에 가서 사왔다. 제주는 목욕을 깨끗이 한 다음 시장에 가서 제물을 사오는데 가격은 깎지 않고 달라는 대로 준다. 조그마한 '오가리솥'은 산제에서 메를 지을 때 쓴다. 제물을 담을 접시도 새것으로 구입했다. 이때 산 솥과 접시는 제사가 끝난 후 제주집에서 사용했는데, 수고비 조로 주어지는 것이다.
제사를 모시기 하루 전에는 마을 입구 두 군데에 대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금줄을 쳤으며 역시 금토를 놓았다. 한 군데는 과거에 벅수(장승)가 있어 '벅수골'로 불리는 공단 쪽의 입구이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삼산 쪽 입구이다. 역시 마을 중앙에 있는 당산나무도 제의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금줄을 치고 금토를 놓았는데 금줄은 흰 종이를 군데군데 꼬아 만든 것이다. 실제 음식을 차리는 곳은 옆에 있는 '전주 이씨 이서' 비각이다.
정월 14일 저녁이 되면 제주가 솥과 제기, 쌀, 제물을 가지고 산제를 지내기 위해 '큰꼴착'으로 올라갔다. 산제단은 탑 모양으로 돌을 쌓아놓은 것이라고 하며, 부르는 이름은 없다. 제주를 도와주기 위해 동네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동행하기도 한다. 제주는 동네샘에서 물을 길어다 메를 짓고 음식을 진설한다. 제물은 집에서 준비해온 것이다. 오색 나물, 탕국, 명태, 조기 등의 제물과 메 한 그릇을 차리고 제사를 모셨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간단히 했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은 땅에 묻고 제기만 챙겨서 하산한다. 이때가 12시 정도 된다고 한다.
산제를 모시고 내려온 후 제주는 집에서 장만한 제물을 비각 앞에 진설하였다. 이곳에서는 제물을 차려놓기만 하고 의례는 없었다. 차려놓은 제물을 당산나무 주위에 뿌리며 헌식했다. 다음에는 벅수골에 제물을 차리고 과거에 하던 대로 제를 모셨다. 현재 생존해 있는 노인 중에 벅수를 직접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없다. 방순조 노인은 벅수골에 벅수가 서 있는 것은 못 보았으나, 짐대를 세워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60여 년 전까지도 짐대가 있었는데, 오리 모양의 나무를 단 긴 나무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월 보름이면 이곳에서 마을부인들이 디딜방아를 세우고 액막이놀이를 했다고 한다. 부근 마을에서 디딜방아를 훔쳐다가 벅수 밑에 세우고 춤을 추며 삥삥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굿을 치면서 놀았다. 강봉성도 어렸을 때 이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니 얼마 전까지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월 15일 제사가 끝난 이튿날 '대첨회'라 불리는 마을회의를 열고 음복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산제를 결산하고 새해 일을 계획했다. 망북에서는 마을의 큰 회의를 정월 보름과 추석 때 두 번 열었는데, 이 회의를 대첨회라 했다. 이 회의에서는 이장에게 수고비로 주는 '나가세'를 걷고, 마을 세금을 정리하고 품삯과 울력할 일을 정했다. 마을회의와 음복이 끝나면 매구를 치고 놀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마당밟이를 했다. 매구를 치게 되면 먼저 마을 뒤의 동네샘에 가서 샘굿을 쳤다. 마당밟이는 5일 정도 계속해서 쳤다. 마당밟이가 끝나는 마지막 날 당산나무 밑 광장에서 매구를 쳤는데 이 굿을 '당산굿'이라 했다. 마당밟이 끝머리에는 항상 이 당산굿을 쳤으며 이 자리에서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술과 음식을 먹으며 놀았다.
해방 전까지 이렇게 모시던 당산제를 동네 청년들이 "다른 데도 안 모십디다. 우리도 지내지 맙시다."고 하여 중단하였다. 그후 동네에서 큰 불이 났는데, 처음에는 이 불이 제를 안 모셔 화를 입은 것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나중에 어린애들의 장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일을 겪고 난 후 제사를 안 지내도 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뒤로 당산제가 중단되었다.

■ 제보자 : 손귀남 • 방순조(남, 88) • 강봉성(남, 63)

### (3) 덕월동 소라마을 당산제

소라마을은 순천전문대학 뒤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소라마을의 당산제는 7~8년 전부터 지내지 않고 있다. 제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된 이 마을의 당산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소라마을의 마을제사는 당산제라 불리며 제사 모시는 것을 '당산제만 모신다', '제만 모신다'고 한다. 당산제는 음력으로 정월 초사흗날 저녁 11시쯤 인적이 없을 때 모신다. 만약 당산제를 모시는 기간에 동네에 초상이 있거나 궂은 일이 발생하면 다시 날을 잡아 지내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이럴 경우 보름 안으로 날을 잡아 제사를 모셨다. 제사를 모시는 곳은 마을 중앙에 있는 당산나무이다. 이곳에는 세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 중에 제사를 모시는 나무는 안쪽에 있는 작은 나무다. 이 나무 밑에는 시멘트로 단을 만들었다. 원래의 당산나무는 일제 때 베어버리고, 그뒤에 다시 심은 것이 지금의 당산나무라고 한다.

제사를 모시기 1주일 전쯤 마을회의를 열어 제관을 뽑았다. 제관은 깨끗한 사람으로 집에 애기가 없고 두 내외가 사는 사람이 선정되었다. 한 번 제관으로 뽑힌 사람의 언행이 깨끗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5년이나 10년을 맡아서 하기도 했다. '정씨하네'와 '사대댁'이 이러한 경우이다. 제관을 새로 뽑지 않을 경우라도 마을회의는 매번 열었다. 또한 애기를 못 낳은 사람이 애를 낳고 싶어 제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관으로 뽑히면 부인은 음식장만을 하고 남편이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모시기 3일 전부터 제관은 금기를 시작했다. 제관은 먼저 집 대문에 '쌍간짓대'를 세우고 금토를 놓아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다. 대나무를 대문 안 양쪽에서 열십자로 세웠다. 이것이 금줄과 같은 기능을 했으므로 금줄은 치지 않았다. 제관은 화장실을 다녀오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래서 화장실을 적게 가려고 일부러 밥을 굶기도 했다. 제주(祭酒)는 마을 뒤의 '동백나무꼴창'에 있는 옹달샘에서 물을 길러다 담갔다. 이 샘의 이름은 없으나 과거부터 손을 비비거나 애를 낳고 젖을 탈 때에 이 물을 사용했다. 제관의 집 앞에 금토를 놓는 날, 당산나무에도 금줄을 치고 금토를 놓았다. 당산나무는 마을 중앙에 있는데, 주위에 대나무를 세워 금줄을 치고 나무에도 금줄을 감았다. 이렇게 금줄이 쳐지고 금토를 놓으면 이곳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제사에 드는 비용은 집집마다 걷어서 마련했다. 섣달에 통장에게 수고비로 주는 돈을 '나가세' 또는 '나가시'라고 하는데, 이 돈을 걷을 때 당산제비로 얼마씩 더 걷어서 제비를 마련했다. 통장에게 주는 나가세는 보리와 쌀로 1년에 두 차례씩 주었다. 겨울에 걷는 나가세 때 당산제비도 한꺼번에 냈다고 한다. 통장은 이렇게 걷힌 쌀에서 다섯 말을 제관에게 주어 제사를 준비하게 했다. 과거에 쌀이나 보리로 주던 나가세를 지금은 1년에 한 번 돈으로 준다. 올해의 경우 집집마다 7,000원씩(세 들어 사는 사람은 4,000원) 냈다. 물론 지금은 당산제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은 순수히 통장에게 주는 나가세이다.

제물은 제관이 시장에 가서 사온다. 제물값은 깎지 않으며 상인이 달라는 대로 준다. 제물을 사와서는 정성들여 깨끗하게 장만한다. 초사흗날 저녁이 되면 동백나무꼴창에서 떠온 물로 메를 짓고 장만한 제물을 들고 당산나무로 가서 진설한다. 제사를 모시는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도 출입을 금하므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모신다. 지내는 순서는 일반 제사와 같이 술을 따르고 재배하고 축을 읽고 소지를 올리는 순이다. 음복은 이튿날 아침 제관집에서 했다. 마을의 깨끗한 사람들을 불러서 음복을 했는데, 상을 당한 사람이나 궂은 데에 다녀온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마당밟이를 하고 놀았다. 마당밟이를 하면 먼저 당산나무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집집이 다니면서 마당밟이를 했다.

소라마을의 당산제는 일제 때 당산나무를 베어버린 후 잠시 중단된 적이 있고, 이후 7~8년 전까지는 해마다 거르지 않고 지냈으나 지금은 중단되었다. 당시 제관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제사를 못 모시게 되었는데, 한 번 안 모시고 별일이 없으니까 그뒤로 안 지냈다고 한다. 당산제를 잘 모시면 복을 받지만 잘못 모시면 해를 입는다는 말도 전한다. 언젠가 동네에 어린애들이 한꺼번에 많이 죽은 적이 있었는데, 당산제를 잘못 모셔 그랬다는 말도 있었다.

■ 제보자 : 최차남(여, 75)·임병심(여, 66), 1995. 2. 24. 현지조사

### (4) 낙안면 창녕리 가정마을 미륵제

가정마을 앞에는 미륵이라 불리는 입석이 두 개 서 있다. 각각을 구분하는 이름이 없이 모두 미륵이라 호칭된다. 큰 입석 위에는 들돌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 마치 사람 몸통 위에 머리가 얹혀진 형상을 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이 들돌이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 입석은 돌담벽과 기와지붕으로 된 한 칸짜리 집 안에 모셔져 있다. 현재의 건물은 다음의 상량문으로 보아 1984년에 중수된 것이다.

西紀一九八四甲子正月二十四日立柱同日 上樑 修

미륵집은 본래부터 기와지붕이었는데, 천씨라는 사람이 그 기와를 걷어다 자기집 사랑채를 이는데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초가가 되었다고 한다. 초가로 된 미륵집은 매년, 집집마다 얼마씩의 짚을 걷어 마름을 엮은 후 지붕개량을 해오다가 1960년대에 기와지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미륵집은 후에 기둥까지 썩어 1984년에 전면적인 중수를 했는데, 현재의 미륵집이다. 이때 들어간 경비는 마을돈으로 했다. 미륵집 부근의 밭에서는 지금도 옛날 토기와편이 자주 발견된다고 한다. 한편 기와를 걷어다 자기집 사랑채를 이는 데 썼던 천씨 성을 가진 사람은 후에 집안이 망했는데, 미륵집에 손을 대서 그랬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다.

동제의 이름은 미륵제라 한다. 제사를 지내는 시기는 음력 정월 14일 저녁이다. 제관은 정월 10일 전 주민들이 참석한 '대보름회의'에서 뽑는다. 제관을 '제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며 특별한 호칭은 없다. 제관은 초상집이나 궂은 데를 안 간 깨끗한 사람이 선정된다.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문 앞에 금토를 놓고, 집중해서 금기해야 한다. 제물은 벌교나 순천장에 가서 사온다. 과일, 명태, 초 등을 사며 물건값은 깎지 않는다. 14일 오전에 제관은 미륵집에 가서 깨끗이 청소하고 금토를 놓고 금줄을 친다.

14일 저녁 12시경이 되면 제관은 제물을 가지고 미륵집으로 간다. 미륵제는 제관 혼자서 지내며, 마을사람들은 이른 저녁부터 출입을 삼가고 마을은 정숙한 상태를 유지한다. 미륵집에 도착한 제관은 미륵 앞에 깨끗한 종이를 깔고 제기에 제물을 담아 진설한다. 메는 놓지 않으며, 대신 그릇에 쌀을 담아놓고 거기에 초를 꽂아둔다. 진설한 다음에는 재배, 헌작, 재배 순으로 제사를 지낸다. 제사가 끝나면 진설한 음식은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15일 낮 12시경에는 매구꾼이 앞장서서 길굿을 치면서 미륵집으로 가서 미륵굿을 친다. 이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한다. 미륵 앞에서 굿을 치고 한바탕 논 다음 전날 두고 간 제물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미륵굿을 치고 나서 샘굿을 치고 상수원에 가서 상수원굿을 친다. 이어 집집이 돌아다니며 마당밟이를 한다. 마당밟이의 순서는 문굿, 마당굿, 조왕굿, 샘굿, 마당굿 순으로 진행된다. 매구꾼들이 마당밟이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은 술·돈·음식 등을 내놓는데, 쌀이나 돈은 마을기금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마당밟이는 다음날까지 했다.

줄다리기는 15일 저녁 8시경에 했다. 줄다리기는 20년 전까지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줄은 쌍줄을 만들어 당겼는데, 마을의 동편, 즉 큰돔이 수줄이고 서편인 작은돔이 암줄이다. 동편이 이겨야 좋다고 한다. 줄은 줄다리기 하루나 이틀 전부터 집집마다 짚을 걷어 제작했다. 줄이 완성되면 "코걸어도라 코걸어도라" 노래를 하면서 줄을 메고 다니기도 한다. 줄다리기는 미륵집 앞 공터에서 했다고 하며, 3판 2승제로 승부를 가렸다. 줄다리기가 끝난 다음, 줄은 소먹이는 사람들이 사갔다고 한다. 보름날 민속행사로 줄다리기 이외에도 달집태우

기가 있다. 달집태우기는 청소년들이 15일 저녁에 마을 앞 논에서 했다. 요즘에도 달집태우기는 계속되고 있다.
미륵은 가정마을 동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대상으로 모시기도 한다. 애기 못 낳은 사람들이 공들이는 곳이다. 이렇게 공을 들여 효과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애 낳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미륵에 공을 들이고, 큰 입석에 올려져 있는 들돌을 들어보고 애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점을 친다. 만약 들돌이 들리면 애를 낳을 수 있는데, 들리지 않으면 애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미륵에 대한 기자의례와 들돌들기는 가정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자주 찾아와 행했다고 한다.

■ 제보자 : 최선구(남, 78)·이성옥(남, 42), 1994. 12. 21. 현지조사

### (5) 주암면 운룡리 당산제

운룡리는 주암면 소재 광천에서 화순 동북쪽으로 넘어가는 터널 바로 못 미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우측으로는 한동산이 있고 좌측으로는 국사봉이 있다. 운룡리는 이런 산 사이의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 한때는 160호 이상 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80여 호 정도가 살고 있다.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며, 얼마 전부터는 삼베를 짜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을이 생긴 지는 600여 년 된 것으로 구전되고 있으며, 입향조는 옹씨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 전설에서와 같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조상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주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 당산나무가 한 600년 되었다고 하는디, 마을이 생기면서 심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전에 옹씨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는디, 그분들이 몇 백년이나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뒤에 송씨·권씨·문씨·최씨들이 임진왜란 때에 그 양반들이 피란을 오신다고 살살 요리 오시다가, 본께 여가 골짝이 깊은께 여그 정도면 피란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들와서 본께, 작년에 오셨든가 그럭께 오셨든가 몇이 서로 만났어요. 사성이 서로 만나서 사시는디 그분들 연대를 보면 비슷해요. 그 연대라는 것은 장개가서 아들을 빨리 못 낳으면 한 대씩 떨어지기도 하잖소. 나는 13대가 났는디 권씨·송씨·문씨들은 12대 정도? 아마 같이 들어온 것 같애. 한날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무렵에 들어왔어. 옹씨들도 그분들이 떠나고 그런 것이 몇 백년 되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여그가 한 600년 터는 되야요.

한국전쟁 전까지도 이 마을은 160여 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마을을 비우고 인근 광천으로 소개(疏開)되었는데, 1~2년 후 다시 마을에 돌아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버리기도 해서 100호 미만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76호가 살고 있다. 성씨 구성은 진주 최씨가 20여 호, 안동 권씨가 6호, 은진 송씨가 5호, 남평 문씨가 4호 그리고 기타 김씨, 정씨, 강씨 등이 모여 살고 있다.
운룡리에는 당이 여러 곳인데 제사를 모시는 곳과 그냥 제물을 묻기만 하는 곳이 있다. 제사를 모시는 곳은 산제단과 상당·하당 세 곳이고, 헌식을 하는 곳은 12당산이 있다. 산제단은 마을 뒷산 '산제골' 입구에 있는데, 이름을 모르는 큰 바위 곁에 마련된 제단이다. 상당은 마을 중앙쯤에 있는데, 600년쯤 되었다고 알려진 느티나무이다. 당산할머니라고 부른다. 상당에는 비슷한 크기의 나무가 두 그루 더 있지만 거기에는 제를 모시지 않는다. 하당은 마을 입구에 있다. 마을 입구에는 큰 느티나무 7~8그루와 버드나무 2그루가 작은 나무들과 함께 우거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를 하당이라고 하며 당산할아버지라고 한다.

지금의 하당은 다른 나무들보다 작은 편인데 전에 있던 거목에서 뿌리친 것이라 하며, 거목이 고사하자 대신 이 나무에 제를 올리게 된 것이다. 하당을 용당(龍堂)이라고도 부르는데, 산세가 용혈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마을이름 운룡과 근처의 비룡·용두 마을들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하당은 좁은 범위로는 느티나무만을 지칭하지만, 넓게 보면 마을 입구의 숲과 바위를 포함한 직경 30여m 정도의 큰 당이다. 여기에는 12당산 중에서 10개의 당이 들어 있는데, 금줄이 이곳을 삥 둘러쳐져 있다.
여기에는 용뿔바위, 용바위, 용소, 용당소 등 용과 관련된 바위와 소가 있다. 이곳은 당산제 이외에도 기우제나 무속의례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간이다. 과거 여기서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돼지 피를 용바위에 뿌리고 용소에 돼지고기를 던지는 반감주술적인 의례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강신무 계열의 점쟁이들이 이곳에 와서 공을 들이는 무속의례도 가끔씩 이루어지고 있다. 용바위 주위에 오색천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의 흔적이다.
상당에 당산할머니, 하당에 당산할아버지가 거처하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바뀐 것이라고 한다. 즉, 본래는 하당에 당산할머니가 있었는데 하당을 통과해서 흐르고 있는 물이 무섭다고 하여 상당의 할아버지와 자리를 바꾼 것이라고 한다.

> 원래는 할아버지가 여기가(상당) 계셔야 되는데, 그전에 전설로 전해오는 얘기를 들으면은, 저 아래 물이 무섭다고 해서 동네 사람 꿈에 선몽을 하셨는 갑서. 그 할머니가 꿈에 선몽하셔서 "물이 무섭다."고 그래서 여그따 모셔논 것이제.

12당산은 제사를 마치고 제물을 묻는 곳이다. 상당에 한 군데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입구 오른쪽에 당산나무숲이 있는데 이것이 하당이며 이 숲 아래에 당산하네(탑1), 용뿔바위, 용소, 탑2·3, 장군석, 용당소1·2, 다리목1·2 등의 당산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왼쪽에는 수구막이가 있는데, 이곳도 음식을 묻는 당산이다.
수구막이는 논 가운데 작은 동산을 만들고 그 위에 입석을 세운 것이다. 마을로 보아서는 거기가 너무 '빼이므로' 수구막이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든 것이라 한다. 곡성 목사동 출신의 한문 선생인 손접장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만들어졌다. 마을 앞산이 좋게는 생겼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대신 가까운 데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지조사는 먼저 마을회관에서 당산제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 마을을 조사지로 선택한 것은 3~4년 전 길쌈두레를 조사할 때 이 마을에서 당산제를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안면을 익혀둔 제보자가 있어 쉽게 조사를 할 수 있었다. 개괄적인 조사를 마친 뒤 당산과 화주집을 사진으로 찍고, 회관에서 당산제와 민요를 조사했다. 원래 당산제를 지내는 날은 아침부터 굿소리를 내며 노는 것이라고 하면서 민요를 불러주었다. 주로 산아지타령과 상사소리를 불렀다. 그리고 당산제가 시작될 때쯤부터 실황을 조사하였다.
마을제사는 음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 모시며, 이름은 당산제라고 한다. 당산제의 준비는 정월 초이렛날 모이는 마을회의에서 화주와 제관, 축관, 헌관을 뽑는 것부터 시작한다.
화주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고 제물과 제주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생기복덕이 맞고 깨끗한 사람이 뽑혔다.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이라도 집에 어린애가 있거나 젊은 여자가 있으면 안 되었다. 어린애가 똥을 싸거나 여자의 생리가 있으면 제물을 깨끗이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화주는 '한 번 당선하려면 하늘에 별따기 맹이로 귀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 화주가 당산제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화주는 상당화주와 하당화주 두 사람을 뽑았다. 상당화주는 산제를 지내고 상당제에 쓰일 제물을 장만하

는 사람이고, 하당화주는 하당제에 쓰일 제물과 제주를 담그는 역할을 한다. 술을 담근다 하여 하당화주를 '주화주' 또는 '술화주'라고도 불렀다.
한편 올해는 화주를 뽑는 게 어렵고 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당화주와 하당화주 일을 다 맡아보도록 했다. 올해 화주를 맡은 사람은 문재인(남, 60)이다. 제관·헌관·축관 등은 엄하게 선별되지는 않았지만 궂은 데를 안 가고 깨끗한 사람이라야 했다. 올해 제관은 권태규(남, 58), 헌관은 문수현(남, 65), 축관은 김현기(남, 35)가 맡았다. 또한 화주·제관·축관 등과 함께 매구꾼들도 선정되었다. 매구꾼들 역시 당산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우 매구꾼만 해도 15명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대포수 1명, 쇠 1~2명, 징 1명, 장구 1명, 소고 1명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외에 당산을 청소하고 당산제 준비를 도와줄 심부름꾼도 2명 정도 선정한다.
화주로 뽑히면 9일(음력)부터 금기에 들어간다. 화주는 집 앞에 금토를 놓고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했다. 하당화주는 공동샘을 청소하고 거기에 금줄을 쳤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샘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집에 우물이나 수도가 있기 때문에 화주집에만 금줄을 치고 금토를 놓는다. 화주는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궂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한 내외간에 방을 따로 쓰며 동침을 하지 않는다. 대소변을 보면 목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 가려고 음식을 적게 먹는다. 화주는 금기하면서 옷 3벌과 신발 3켤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화장실 갈 때, 일상생활 할 때, 제 지내러 갈 때를 구별해서 입고 신었다고 한다.
시장은 광천장(3, 8일장)에서 봤다. 먼 곳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화주가 만약 먼 곳으로 나갔을 경우 오줌이라도 마려워 누게 되면 다시 돌아와 목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갈 때는 상인이나 다른 사람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화주 둘과 제관 중에서 동행을 한다. 음식값은 달라는 대로 준다. 올해는 이장이 시장을 보러 갔으며, 사오는 물건은 산제에 쓸 솥과 접시·돼지머리·돼지고기·청어(지금은 전어)·명태·김·미역 등이다.
제물을 사오면 상당화주집에서는 나물·떡·김 등만 보관하거나 만들며 하당화주가 비린내 나는 고기와 생선을 보관하고 장만한다. 화주(곧 화주 부인)가 음식을 장만할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도중에 맛을 봐서는 안 되며, 침이 튀니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만약 맛을 보면 입이 삐뚤어진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제주를 담그다가 넘쳐서 그것을 먹었는데, 입이 삐뚤어져서 당산에 가서 빌고 절하고 한 다음에야 나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 절구통에 떡방아를 찧다가 떡고물이 마당에 떨어졌는데, 닭이 그것을 먹고 목이 홱 돌아버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다.
화주는 이렇게 금기를 하고서도 제사가 끝난 후 1년 동안 궂은 데를 안 가고 조심해야 된다. 화주를 맡은 사람이 이만큼 고생한다고 하여 마을에서는 동네 논을 짓게 하는데, 그 논을 화주답이라 한다. 상당화주답은 막내동(莫乃坪)에 있는데 414번지에 455평, 417번지에 34평이 있다. 그리고 하당화주답은 원개동(元介坪) 386번지에 357평이 있다. 화주들은 이 논에서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마을에 그 소출의 얼마를 내는데, 대개 떡 한두 말과 술 다섯 말 정도를 낸다.
한편 과거에는 화주가 금기를 시작하면 마을사람들도 더불어 조심했다. 술화주가 기우를 시작하면 보리논에 거름도 못 내며, 외양간 청소와 빨래도 못 했다고 한다. 그래야 깨끗한 물이 당산으로 내려온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엄하게 조심하지는 않는다. 제관·축관·헌관·매구꾼들은 궂은 일(동물을 잡거나 상가에 가는 것)을 하지 않고 궂은 음식을 먹지 않으며,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제사 지내는 14일에만 목욕재계하면 된다.

제사 비용은 집집이 가족수대로 돈을 걷어서 마련한다. 전체 예산을 인구수로 나누어 이장이 제사를 지내기 며칠 전에 걷는다. 화주답은 화주에게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이므로 여기서의 소출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다만 밥과 떡을 하는 쌀 정도는 화주답의 소출로 부담한다.

당산제는 먼저 산제부터 지낸다. 예전에는 저녁 9시경이 되면 상당화주가 산제를 지내기 위해 산제단에 올라갔으나 올해는 8시쯤에 올라갔다. 산제는 마을 뒷산 산제골에 있는 바위 곁에서 지낸다. 바위 이름은 없다.

산제에는 상당화주 혼자 가며, 아들이 있으면 같이 가기도 한다. 산제단에 도착하면 부근 샘에서 물을 길어다 메를 짓는다. 메를 지어 한 그릇을 차리고 제물은 김과 미역 한 가닥을 놓는다. 미역은 물에 담가놓았다가 국 대신 놓는다. 제사의 순서는 술 따르고 재배하고, 구축하는 순으로 한다. 제물로 차린 음식은 그 자리에서 다 먹거나 먹을 수 없으면 집에 가져와서라도 먹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줘서는 안 되며 반드시 화주가 먹어야 한다. 산제가 끝나면 화주는 집에 돌아와 쉰다.

산제가 끝나면 먼저 상당에 제사를 드린다. 예전에는 12시 무렵에 시작했으나 요즘에는 시간을 당겨서 지내고 있다. 간소화하자는 경향 때문이라고 한다. 당산제의 진행을 순서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밤 9시 25분에 마을회관에 모여 있던 헌관·축관·제관과 매구꾼들이 화주집으로 이동했다. 이동할 때부터 매구를 치고 갔다. 매구꾼은 쇠 1명, 징 1명, 장구 1명, 소고 1명, 기(삼지창기) 2명으로 구성되었다. 삼지창에는 오색천과 꽃술이 달려 있다. 예전에는 악기별로 두 명 이상씩 15명이 넘었으나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 했다. 이동할 때에는 길굿을 쳤다. 화주집에서 한 사람이 제물 하나씩을 들고 35분에 상당으로 이동했다. 이동할 때에도 매구를 치는데 쇠, 장구, 징 하나씩만 연주를 하고 나머지 매구꾼들은 악기나 기를 든 채 제물을 들고 갔다. 제물은 두 개 이상을 포개서 들면 안 된다.

55분에 상당에 도착한 뒤 제물을 당산나무 밑의 '상독' 위에 진설했다. 제물은 메 1그릇, 물 1그릇, 무나물, 돼지고기, 전어, 떡편, 술이었다. 매구꾼들은 매구를 내려놓고, 제관들 뒤에 섰다. 삼지창은 당산나무 곁에 세워놓았다. 당산할머니가 굿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매구를 치지 않는다고 했다. 제관·헌관·축관·화주·대포수·상쇠 순으로 잔을 드리고 절을 했다. 이어 축을 읽고 소지를 올렸다. 상당에서의 축사는 다음과 같다.

> 당산조모님 당산조모님 당산조모님 해로는 을해년이옵고 월로는 정월이옵고 일로는 병자일이로소이다. 촌인민이 다 목욕재계하고 상화주 주민대표 문재인이 별산치성하여 당산조모님 전에 제반을 드리오니 정심으로 내려 음향하옵시고 백호촌락에 호구도 자시하게 점지하여 주옵고 인물도 흥창하옵고 문학도 위흥하게 점지하옵고 백곡이 다 풍향하게 점지하옵고 육축도 번성하옵고 질역도 소제하고 여제도 진멸하옵고 상서롭고 경사로운 일만 날마다 이루기를 점지하옵기를 천만축사 바라나이다. 성원성축 취하옵소서.

이렇게 제사가 끝나자 제물 일부를 흰 종이에 싸서 당산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준비한 장작으로 모닥불을 피웠다. 제관들과 매구꾼들이 불 주위에 모여 음복을 했다. 고기와 술 등을 먹고 볼일을 본 뒤 하천으로 가서 손을 씻고 하당으로 이동할 준비를 했다.

이어 10시 30분에 다시 굿을 하면서 하당화주집으로 이동했다. 본래 상당화주와 하당화주가 따로 있어야 하나 올해는 화주를 뽑기가 어려워 한 사람이 상당화주와 하당화주를 맡았다. 매구꾼과 제관들이 아까 다녀갔던 화주집으로 다시 와서 제물을 들고 나갔다. 상당으로 갈

때와 같은 방식으로 굿을 하면서 제물을 들고 40분에 하당으로 갔다. 하당의 제사도 상당의 제사와 같은 순서로 지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구를 끊지 않고 계속 쳤다. “아랫당산 당산하네가 굿을 좋아한께.” 매구를 계속 친다고 했다. 하당에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현전하는 축은 최만운이 만든 것이라 전한다.

維歲次 乙亥正月壬戌朔十五日丙子幼學敢昭告于
堂山之神 今爲百戶村落 戶口滋殖
人物興昌 文學爲興 百穀豊穰 六畜蕃盛
疾疫掃除 厲灾殄滅 瑞慶大來 莫匪神賜
謹以淸酌 庶着祗薦 于神
尙饗

11시 55분에 하당에서의 제사가 끝나고 모닥불을 피웠다. 제관들이 불 옆에서 12당산에 묻을 음식을 흰 종이로 말았다. 음식은 하당에 차렸던 제물을 골고루 나눈 것이다. 12당산 중에서 하나는 상당 밑의 ‘탑’으로 아까 상당제 후에 음식을 묻었던 곳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머지 11당산에 헌식을 했다. 11당산은 마을 입구인 하당과 그 주위에 분포하고 있다. 당산에 제물을 묻을 때에도 매구를 계속 쳤다. 괭이로 제물을 묻는 순으로 11당산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당산하네(탑1), 용뿔바위, 용소, 탑2・3, 수구막이, 장군석, 용당소1・2, 다리목1・2이다.
헌식을 마친 뒤 모닥불 주위에서 음복을 했다. 과거의 경우 하당제가 끝나면 나발을 불어 제사가 끝났음을 알렸다. 나발을 불면 마을사람들이 하당으로 내려와 함께 어울리며 흥겹게 놀았다. 보름날 잠을 자면 굼벵이가 된다고 하여 모두 안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당으로 내려와 술과 음식을 먹으며 놀았다. 이때는 아무나 와서 날을 새면서 굿을 하고 놀았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갖 복장과 모양을 하고서 우스갯짓과 소리를 하며 놀기도 하고, 노래판과 춤판을 벌이며 놀기도 했다.
모닥불 주위에서 쉬고 있을 때 마을에서 부쇠와 서너 명이 내려왔다. 상쇠는 낮에 다쳐서 불참했고, 부쇠는 기우를 하지 않아 당산제에 참석하지 못하고 마을회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당제가 끝나고 합류하였다. 지금까지 종쇠가 매구패를 이끌고 있었는데 부쇠가 내려온 뒤부터는 부쇠가 이끌었다.
12시 30분이 되자 먼저 쌍룡교에서 다리굿을 쳤다. 근처에 있는 영천사 주지가 돼지 한 마리를 기증했기 때문에 영천사 길목에 있는 다리에서 특별히 다리굿을 쳐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당산굿을 치고 길굿을 치면서 마을로 돌아왔다. 과거의 경우 하당제가 끝난 후로도 계속 하당에 남아 날을 새워 굿을 치며 놀았다고 한다. 이렇게 놀다가 날이 새면 가마에 화주들을 태우고 굿을 치면서 동네로 돌아왔다. 화주들이 동네를 위해 일을 했으니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라 한다. 화주들을 태우고 돌아오면서 아리랑이나 에야디야 같은 농요를 불렀다.

에야 뒤야 에헤에에야
에헤디여라 산아지로구나
갈라면 가거라 말라면 말제
경상북도로 시집을 가냐

55분에 마을회관으로 돌아와 굿물을 정리하고 각 집으로 해산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 아침에 마을로 돌아와 화주집으로 가서 마당밟이를 했다고 한다. 먼저 상당화주집에 들어가 마당밟이를 했다. 한 차례 굿을 치고 음식을 먹은 후 하당화주집으로 가서도 똑같이 마당밟이를 했다. 이렇게 한 후 조금 쉬었다가 집집이 다니며 마당밟이를 했다. 마당밟이는 문굿, 마당굿, 조왕굿, 장꼬방굿, 시암굿, 소마구굿, 노적굿 순으로 쳤다. 밤늦게까지 매구를 치고 놀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다음날 계속 치기 위해 소고를 집으로 가지고 갔다. 다음날 다른 사람에게 소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마당밟이를 하고 매구를 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올해의 마당밟이는 보름날 오후부터 할 예정이라고 한다. 줄다리기는 보름날 전후로 하지 않고, 2월 초하룻날 낮에 했다. 줄다리기는 호구수를 반으로 나눠 동서로 편을 갈라 했는데, 각 편이 그때그때 정해 각각 암줄·수줄을 만들었다. 줄다리기에서 지면 동네 울력을 했다. 예를 들어 진 편이 길을 고치는 일을 하면 이긴 편은 구경했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60년 전까지는 활발하게 했으며, 한국전쟁 직후까지도 젊은 청년들에 의해 산발적으로나마 전승되어 왔으나 곧바로 중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인근에서 운룡리만큼 당산의 영향력이 센 곳이 없다고 말한다. 당산이 세고 엄해서 사람들은 당산제를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내왔다. 심지어 한국전쟁 때 마을이 소개되어 텅 비고 통행이 금지되었을 때도, 경찰들에게 사정해서 낮에 제관들이 마을에 들어와 당산제만은 모시고 갔을 정도라고 한다. 당산신은 영험해서 도둑이 들어오면 못 나가게 잡아두기도 했다고 한다. 다음 전설에서와 같이 도둑이 밤 새워 당산 주위만 뺑뺑 돌게 했다고 한다.

> 도둑놈이 와서 소를 몰고 나간디 당산에만 뺑뺑 돌았다 그런 전설이 있고, 볏섬을 짊어지고 못가고 돌고, 그런 영검이 있다는 전설이 있제.

또한 당산신은 매우 엄하고 무서운 존재라고 한다. 특히 제물을 함부로 먹거나 제상에 차린 떡을 먹고 상가에 가서 궂은 음식을 먹으면 큰일난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런 사례를 직접 보고 들어서 그것을 더욱 조심한다. 한번은 어린애가 배가 고파서 화주집에서 몰래 제물을 먹었는데, 나중에 상가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난 후 죽은 적도 있다고 한다.

운룡마을의 당산제는 엄숙하고 조심스럽게 준비되는데, 특히 화주는 많은 금기와 조심이 뒤따랐다. 제사를 모시기 전 화주는 매우 엄하게 기우해야 하며 제사를 모신 후에도 1년간은 초상난 곳이나 궂은 데를 가서는 안 된다. 또한 제관·헌관·축관 등도 3개월 동안은 궂은 데를 가면 안 된다.

한편 당산제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엄하다 보니,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당산제와 관련된 금기를 복잡하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화주나 제관 등을 안 맡으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당산제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여러 가지가 약소화되고 있는데, 제사 후 화주의 기우를 6개월로 줄이자고 하여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는, "화주는 정월만 개리면 되고, 기타 제관·축관 등은 20일(음력)까지만 개리면 괜찮다."고 의견을 모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해져도 막상 당사자들은 옛날 방식을 염두에 두고 그 기간에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 주도적으로 일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빠져나가려는 사람이 늘어나

자, 조별로 책임지고 당산제를 지내자고 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뽑고 준비하고 있다. 즉 마을을 2개 반으로 나누고, 각 반당 2개 조씩 나눠 화주・제관 등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1반 1조, 2반 1조가 맡았고, 올해에는 1반 2조, 2반 2조가 맡아 지내기로 했다고 한다. 마을노인들은 요즘 들어 당산제가 약화되고 매구의 규모도 줄어들었다고 아쉬워한다. 젊은 사람들의 반대는 없으나 기독교 신자들이 미신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 제보자 : 최병남(남, 72)・김영배(남, 64, 상쇠)・강대은(남, 57)・박지권(남, 57), 1955. 2. 13. 현지조사